



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¹⁾

황여정 선임연구위원

개요

- 조사목적** ▶ 2021년 신규 작성되는 「위기청소년 실태조사」를 위해 설계된 조사표(안)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, 수정·보완 사항을 확인하고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음.
- ▶ 예비조사는 조사내용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, 동시에 조사문항에 대한 시범적 분석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위기청소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목적을 두었음.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자 하였음.
- 조사대상** ▶ 예비조사는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위기의 특성(복합위기군 및 고위기군)과 실사 가능성을 고려하여, 가출청소년과 소년법 처분을 받은 비행·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.
- ▶ 분석대상은 총 565명이며, 남자청소년 340명(60.2%), 여자청소년 225명(39.8%), 16세 미만 75명(13.4%), 16세 이상~19세 미만 290명(51.7%), 19세 이상 196명(34.9%), 가출청소년 294명(52.0%), 소년법 271명(48.0%)임.
- 조사방법** ▶ COVID-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조사(우편조사) 방식으로 실시함.
- 조사기간** ▶ 2020년 10월~11월

1) 본 청소년 통계 브리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연구과제인 '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'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·요약한 것임.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구의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.

1 가정 내 성장 환경

■ 위기청소년의 상당수는 성장 환경에서 가정 내 불화 및 가정폭력(신체폭력 및 언어폭력 포함)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음.

- 부모가 싸우면서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답한 위기청소년 비율은 전체의 48.1%에 달했고, 특히 가출청소년 중에서는 59.2%가 이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음.
- 가정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, '폭행 또는 신체적 위협'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위기청소년 비율은 58.4%(가출청소년 70.7%, 비행·범죄 청소년 45.0%)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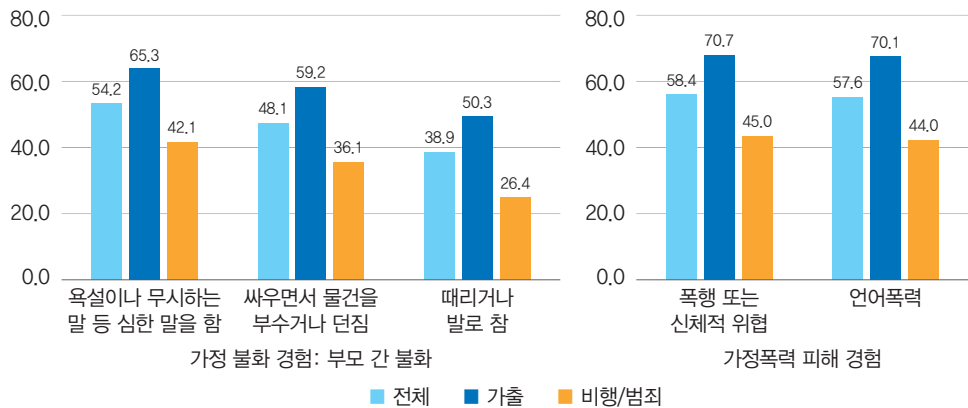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가정 불화 및 가정폭력 피해 경험 (단위: %)

2 가정 밖 경험

■ '가출'은 청소년들을 다양한 위기상황에 노출시키는 핵심적인 위기 요인임. 이에 가출과 관련한 다양한 실태를 파악하였음. 먼저, 가출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, 성장환경에서의 가정 불화 및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가출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확인함.

-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66.3%,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0.7%로 파악되었음.
- 특히 가정폭력(신체·언어폭력)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져서,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생애 가출 경험 비율이 24.1%p 더 높게 파악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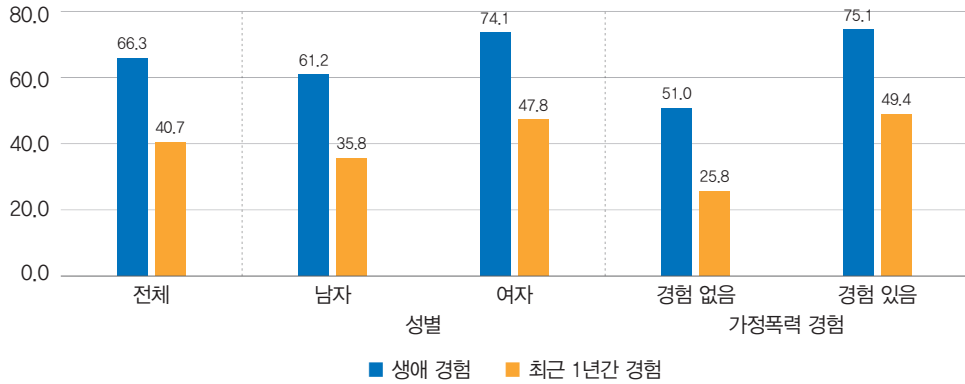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가출 생애 경험 및 최근 1년간 경험률 (단위: %)

■ 가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, ‘부모님, 형제, 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(가족들과 싸워서)’라는 응답이 63.0%로 가장 많았고, ‘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’(44.5%), ‘부모님, 형제, 자매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’(30.8%), ‘친구나 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’(10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– 특히 ‘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’ 가출했다는 응답이 30.8%로 나타나, 가정폭력이 가출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음.

표 1 집을 나오게 된 이유(중복응답)

(단위: %)

구분		가족과의 갈등 때문에	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	가정 형편이 어려워서	학교에 다니기 싫어서	왕따 등 학교 폭력 때문에	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	친구나 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	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	기타
전 체		63.0	30.8	3.8	9.9	4.6	5.4	10.7	44.5	4.6
성별	남자	58.3	25.7	3.9	6.8	2.4	5.3	8.7	45.1	4.9
	여자	68.9	37.1	3.6	13.8	7.2	5.4	13.2	43.7	4.2
가출 빈도	1~3회	59.1	31.5	3.0	6.4	4.4	4.4	8.9	36.0	3.4
	4회 이상	68.0	30.2	4.7	14.2	4.7	6.5	13.0	55.0	5.3

■ 가출 청소년 4명 중 1명 비율로 노숙을 경험하여,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.

- 가출 후 지낸 장소에 대한 조사 결과, '친구 또는 선·후배 집'이라는 응답이 72.5%로 가장 많았고, '여관/모텔/달방/월세방'이 41.2%, '청소년쉼터'(37.7%), '찜질방/고시원/PC방'(32.9%) 등으로 파악되었음. '건물이나 길거리 노숙(건물 안 계단/지하철역/길거리/놀이터/공원 등)'을 했다는 응답도 23.0%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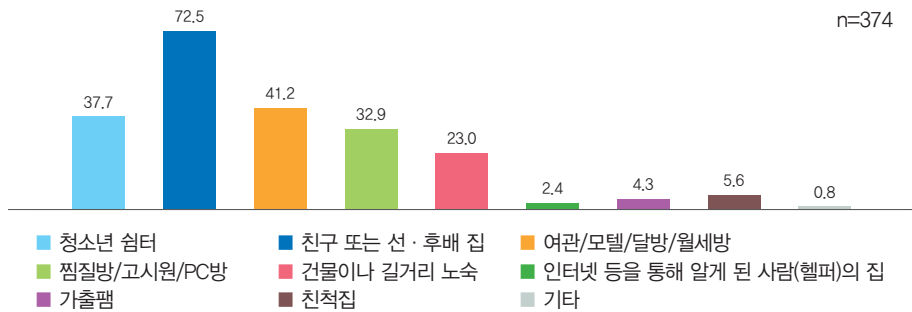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가출 후 지낸 장소 (중복응답, 단위 %)

■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, 기본적인 생활에 요구되는 의·식·주 및 생필품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.

- 1순위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, '숙식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'이 51.4%로 과반을 차지했고, '당장 필요한 생필품의 제공'이 23.5%로 그 뒤를 이었으며, '일할 곳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취업 지원'이 14.4%로 3위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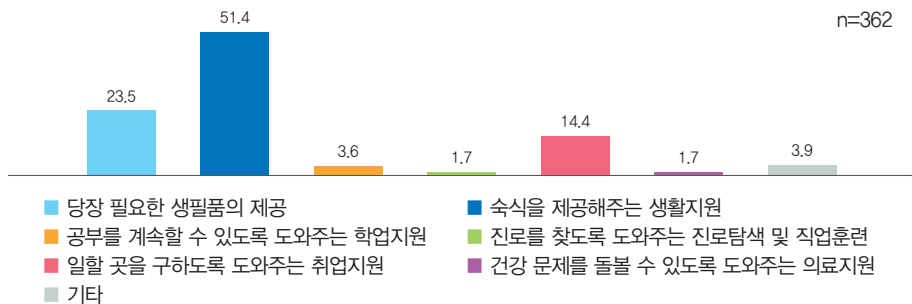


그림 4 가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(단위: %)

3 디지털 성범죄 및 조건만남 피해 경험

- 위기청소년의 성 보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, 디지털 성범죄 및 조건만남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음.
-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,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10가지 피해 유형을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1.7%로 파악되었음.
 -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, 남자 청소년의 피해율(11.8%)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피해율(36.6%)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.

표 2 위기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

(단위: %)

구분	전체	성별	
		남자	여자
사례수(명)	562	338	224
하나라도 경험한 응답자 비율	21.7	11.8	36.6
1)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	12.8	6.8	21.9
2) 내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 받은 적이 있다	6.9	2.7	13.4
3)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영상에 내 얼굴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이 있다	3.6	2.7	4.9
4) 내 동의 없이, 나의 신체 일부(다리, 가슴 등)가 촬영된 적이 있다	3.0	1.5	5.4
5)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	9.6	2.1	21.0
6) 내 신체 또는 내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폐하겠다고 협박 받아본 적이 있다	4.1	2.1	7.1
7) 불법촬영 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이나 채팅방(단톡방 포함)에서 유폐된 적이 있다	1.8	1.2	2.7
8) 돈이나 금품 등 대가를 미끼로 내 사진이나 영상물, 개인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	3.6	0.9	7.6
9)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(불특정 스팸 제외)	8.2	3.0	16.1
10) 온라인에서 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	5.3	2.1	10.3

-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입점 확인을 위해,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경험을 어디에서 했는지를 조사하였음.
 - 그 결과, 'SNS(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트위터, 밴드 등)'라는 응답이 68.4%로 가장 많았고, '인터넷/모바일 메신저'(55.3%), '랜덤채팅앱'(11.4%), '온라인게임'(7.0%), '개인방송(유튜브, 아프리카TV 등)'(6.1%)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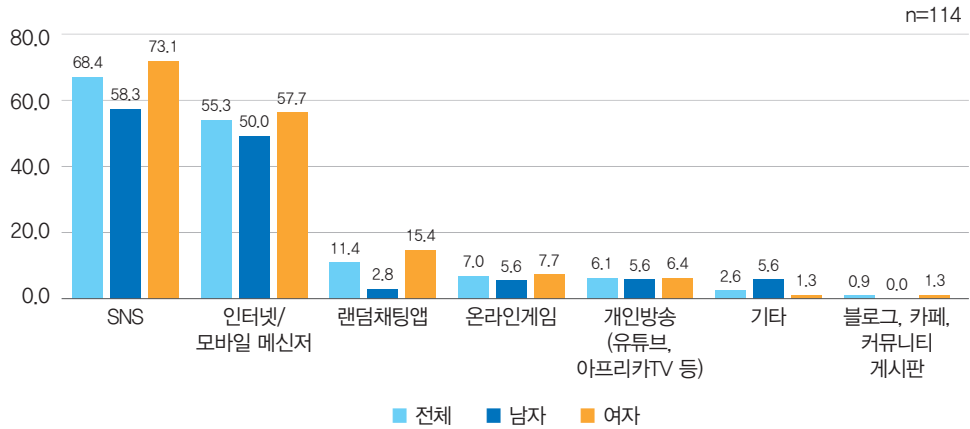


그림 5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로 (중복응답, 단위 %)

■ ‘조건만남’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,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이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9.8%, 실제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6.0%로 파악되었음.

- 조건만남 경험은 성별에 따라 응답 결과 차이가 두드러졌음.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 또는 제안을 받은 경험율은 여자 청소년(21.5%)이 남자 청소년(2.1%) 보다 10배 높게 나타났고, 실제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도 여자 청소년(11.6%)이 남자 청소년(2.5%) 보다 4.6배 높았음.

표 3 조건만남 피해 경험

(단위: %)

구분		조건만남에 대한 유인 또는 제안을 받은 경험	조건만남 경험
전 체		9.8	6.0
성별	남자	2.1	2.5
	여자	21.5	11.6
연령	19세 미만	10.5	6.5
	19세 이상	8.7	5.3

■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, ‘갈 곳(잘 곳)이 없어서’라는 응답이 43.3%로 가장 많았고, ‘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서’(36.7%), ‘노는 데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’(33.3%), ‘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’(33.3%), ‘친구들이 하자고 해서’(30.0%), ‘호기심에서’(16.7%), ‘자포자기의 심정으로’(13.3%), ‘다른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없이’(10.0%) 순으로 파악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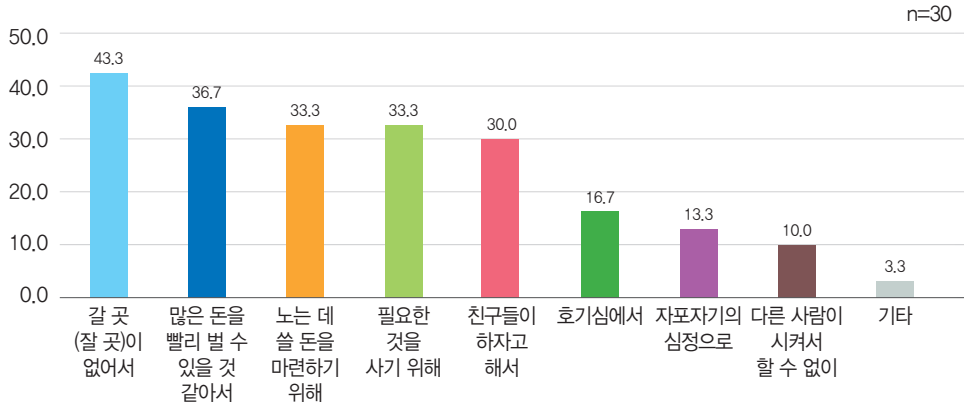


그림 6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 (중복응답, 단위 %)

4 자해·자살 시도 경험

- 자해 및 자살 시도는 그 자체로 고위기의 징후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. 이에 자해 및 자살 시도 관련 실태를 파악하였음.
- 자해 시도 경험률 조사 결과, 지금까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0.5%로 나타남.
 - 자해 시도 경험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커서, 여자 청소년의 자해 시도 경험률(53.3%)이 남자 청소년(15.2%)에 비해 훨씬 높았음.
 - 가출 빈도에 따른 비교 결과,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가출을 여러 번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자해 시도율이 높게 나타남.
 -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(41.0%)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(12.2%)에 비하여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음.
- 자해 시도 빈도를 조사한 결과, 전체 응답자 중 11.8%가 1달에 1~2번 이상 자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('일주일에 1~2번' 7.0% + '1달에 1~2번' 4.8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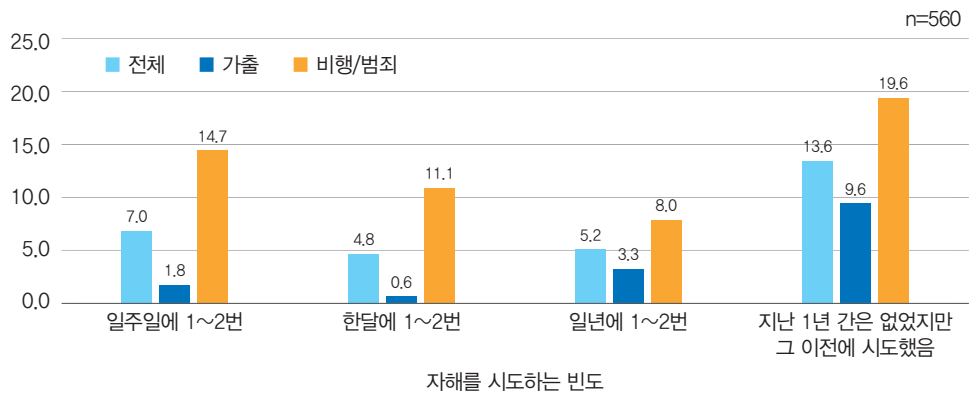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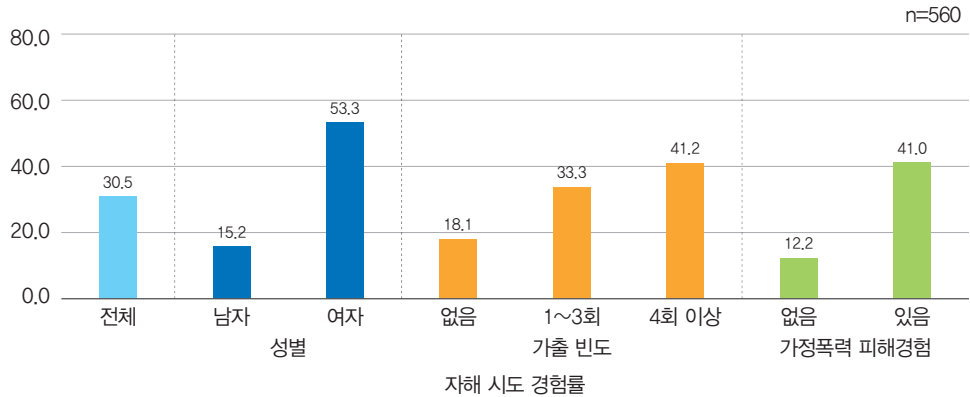


그림 7 자해 시도 경험 및 빈도 (단위: %)

■ 자살 시도율 및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,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0.1%로 나타남.

- 여자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(35.2%)이 남자 청소년(10.2%) 보다 3배 이상 높았고,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없다고 답한 청소년(6.9%)에 비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(27.6%)이 4배 더 높게 나타났음.
-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사유에 대해서는 '가족 간의 갈등' 때문이라는 응답이 49.4%로 가장 높았고, '또래와의 갈등'(12.0%), '미래에 대한 불안'(10.8%)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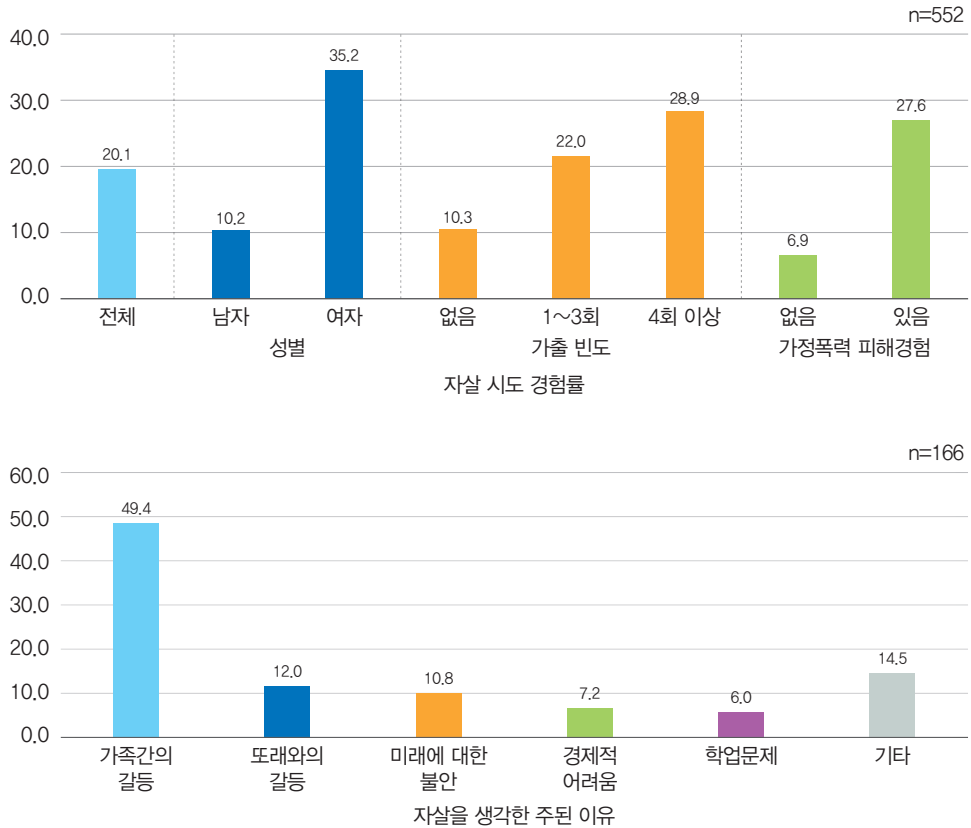


그림 8 자살 시도 경험 및 자살을 생각한 이유 (단위: %)

■ 자해 및 자살 시도에 대한 보호요인을 확인해보고자, 자해 및 자살 시도 중단을 위한 노력 여부 및 중단 노력에 도움을 준 요인을 조사하였음.

- 조사 결과, '자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한 적이 있고, 현재 그만 두었다'는 응답은 유경험자의 83.3%, '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한 적이 있고, 현재 그만 두었다'는 응답은 유경험자의 81.5%로 파악되었음.
- 자해/자살 시도를 그만두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, 중단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을 조사한 결과, '스스로의 의지와 노력'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고, '친구, 지인, 선후배의 도움'과 '선생님(학교, 학원, 청소년시설 등)의 도움', '상담기관/의료기관의 도움', '가족의 도움' 순으로 파악되었음.
- 자해 또는 자살 시도를 그만두는 데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, 여기에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(significant others)의 지지와 도움이 유효하게 작용함을 시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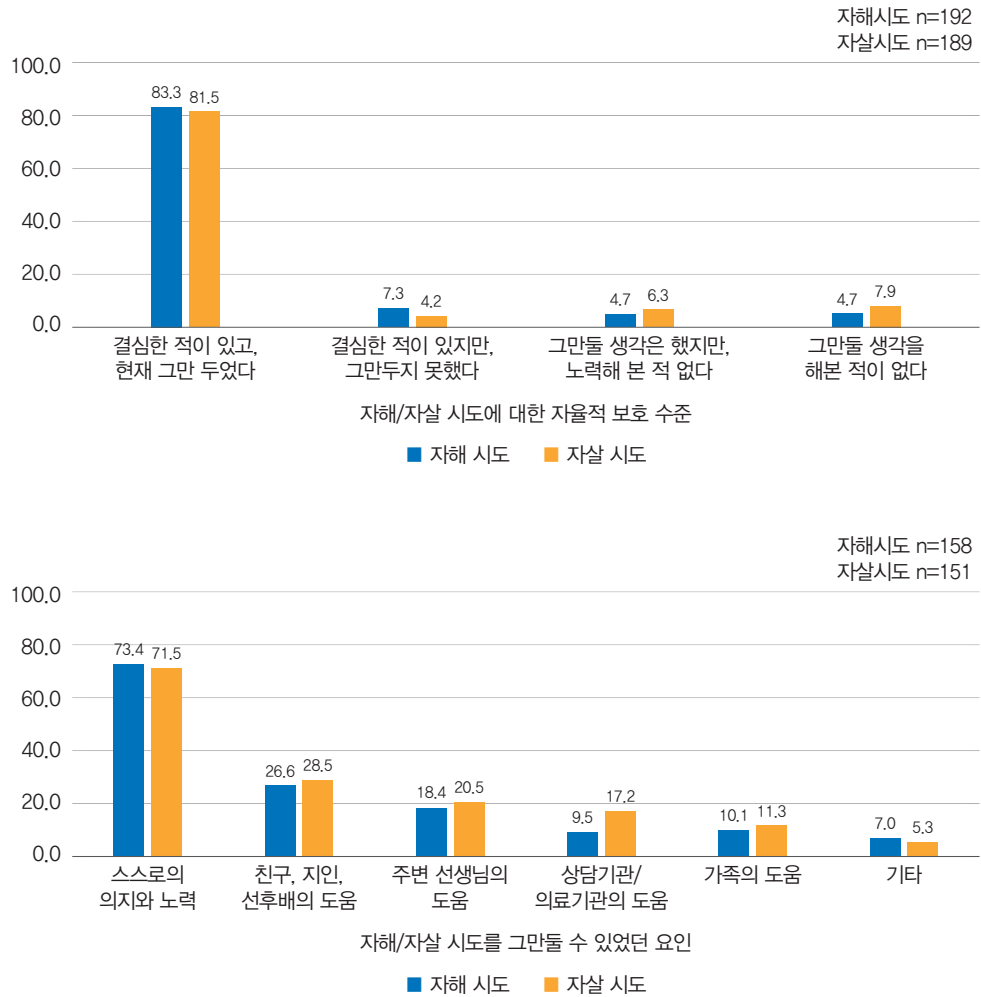


그림 9 자해 시도 및 자살 시도에 대한 보호요인 (단위: %)

5 주된 어려움 및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

■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사하였음.

- 전체 응답자의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, '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'이 44.0%로 가장 높았고, '가족과의 갈등'(33.0%), '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어려움'(31.9%), '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'(26.8%) 등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음.
- 그 밖에 '일을 구하기 어려움'(17.2%), '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주며,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'(16.7%), '할 일도 없고,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'(15.6%), '또래(친구 또는 선후배 등)와의 갈등'(13.6%)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음. '어려움이 없다'는 응답은 26.4%를 차지함.

표 4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(중복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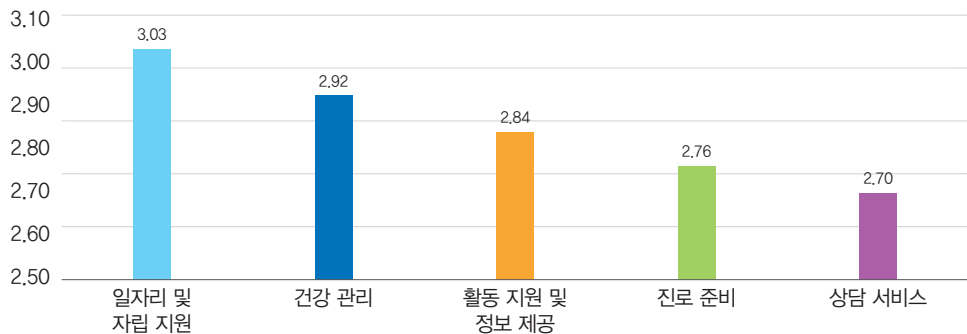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구분	전체	성별		위기 유형	
		남	여	가출	비행·범죄
•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	44.0	33.8	59.3	47.4	40.3
• 가족과의 갈등	33.0	23.0	48.0	49.8	14.4
•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가 어려움	31.9	25.1	42.1	31.8	31.9
•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	26.8	22.7	33.0	37.4	15.2
• 일을 구하기 어려움	17.2	16.3	18.6	19.7	14.4
•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,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	16.7	10.9	25.3	20.4	12.5
• 할 일도 없고,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	15.6	10.0	24.0	18.3	12.5
• 또래(친구 또는 선후배 등)와의 갈등	13.6	8.2	21.7	16.3	10.6
•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	8.5	4.2	14.9	11.4	5.3
• 건강이 좋지 않음	8.5	3.9	15.4	10.4	6.5
• 지낼 곳을 찾기가 어려움	6.2	3.0	10.9	9.7	2.3
• 기타	1.8	1.5	2.3	2.1	1.5
•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(각종 비행·범죄 등)을 해야 함	1.3	0.3	2.7	1.4	1.1
• 어려움이 없음	26.4	35.0	13.6	18.7	35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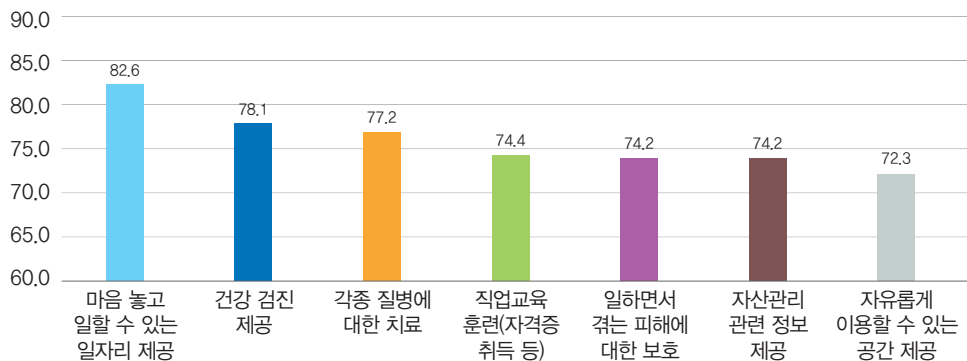
* 사례수는 전체 n=552, 남자 n=331, 여자 n=221, 가출청소년 n=289, 비행·범죄청소년 n=263.

■ 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, 영역별로는 '일자리 및 자립지원'에 대한 요구가 4점 만점에 평균 3.03점으로 가장 높고, '건강 관리'(2.92점), '활동 지원 및 정보 제공'(2.84점), '진로 준비'(2.76점), '상담 서비스'(2.70점) 순으로 파악되었음.

- 세부 항목별 조사결과 중에서 상위 응답 비율을 차지한 항목을 선별해서 살펴보면, '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'이 82.6%로 가장 높았고, '건강검진 제공'(78.1%), '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'(77.2%), '직업교육 훈련(자격증 취득 등)'(74.4%), '일하면서 겪는 피해에 대한 보호'(74.2%), '자산관리 관련 정보 제공'(74.2%)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.
- 위기청소년들은 자립 및 건강 관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요건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음을 시사함.



지원서비스 영역별 수요도 (단위: 점)



지원서비스 개별 항목별 수요도 상위 7개 항목 (단위: %)

그림 10 지원서비스 수요도: 영역별 및 상위 7개 항목별